



LADY WILKINSON과 서사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던 참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 번 휩 흔들며 나를 붙잡으셨다.

“정말 나를 이렇게 두고 갈 거니?”

언제 또 볼 수 있겠니?

남아서 나랑 이야기하자.

후회하지 않을 거야.

Maggy가 약속하마.”

내 휴가 계획은 단순했다.

이틀.

다음 날 저녁이면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이 지긋한 귀족 부인이 런던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고, 반쪽 피가 칼라브리아 사람인 나는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분의 눈이 커졌다.

잠시 그분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신 것처럼 보였다.

잘못 알아들으신 것처럼.

그러나 아니었다.

정말 내가 한 말이었다.

그리고 경험으로 무장하고 절대적인 사고의 명료함을 타고난 영국 여인인 그분은 곧바로 그 기회를 알아보셨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평생.”

세상 어디서든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이미 당신을 위해 하나 이상의 놀라움을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여러 문화를 오간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이었다.

내가 만난 여자들은 결코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들은 그저 내가 속한 세계의 기원이었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 새 출발 일정을 알리기로 했다.

그분께 닳새를 드리기로 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었다.

그러나 나를 보내기 전에 그분은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오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여인은 내 친구란다.

우리는 같은 전쟁에서 싸웠지.

운명은 결국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잊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존경은 진짜로 남았고.

존경은 서로의 것으로 남았지.”

그러고는 이미 여러 번의 생을 살아 낸 사람의 차분한 확신으로 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꾼 그 말을 조용히 건네셨다:

“어서 오렴, 조카야.”

Ferdinando